3. 글 읽기

셋째는 글 읽기이니, 배우는 자가 이미 선비의 행실로 몸가짐을 단속하고 나서는 반드시 독서와 강학으로 의리를 밝혀야 하니 그런 뒤에 학문에 나아가야 학문의 방향이 흐리지 않는 것이다.

스승에게 배우되 배움은 넓어야 하고 질문은 자세하게 해야 하며 생각은 신중하게 해야 하고 분별은 명확해야 한다. 그리하여 깊이 생각하여 반드시 마음으로 터득하기를 기약할 것이다. 언제나 글을 읽을 때는 반드시 태도를 정숙하게 하고 단정히 앉아서 마음과 생각을 한곳으로 모아 한 가지 글에 익숙해진 다음에 비로소 다른 글을 읽어야 하고 많이 보기에 힘쓰지 말아야 하고 기억하는 것만 일삼지 말아야 한다.

글 읽는 순서는 『소학』을 먼저 배워 그 근본을 배양하고, 다음에는 『대학』과 『근사록』[9]으로 그 규모를 정하고, 그다음에는 『논어』,

---

9 『근사록(近思錄)』: 1175년 주자와 여조겸이 주돈이, 정호, 정이, 장재 등 네 학자의 글에서 학문의 중심문제들과 일상생활에 요긴한 부분들을 뽑아 편집하였다. 근사라는 제목

『맹자』, 『중용』과 오경[10]을 읽고, 『사기』[11]와 선현의 성리[12]에 관한 책을 간간이 읽어 뜻을 넓히고 식견을 가다듬어야 할 것이다. 성인이 짓지 않은 글은 읽지 말고 보탬이 없는 글은 보지 말아야 한다.

글 읽는 여가에는 때로 기예를 즐기되 거문고 타기, 활쏘기 연습, 투호 등의 놀이는 모두 각자의 규범을 두어 적당한 시기가 아니면 놀지 말고 장기, 바둑 등 잡희에 눈을 돌려 실제의 공부에 방해가 되게 해서는 안 된다.

은 『논어』의 "널리 배우고 뜻을 돈독히 하며, 절실하게 묻고 가까이 생각하면[切問而近思] 인(仁)은 그 가운데 있다"는 구절에서 따왔다.

10 오경(五經) : 유학에서 중시하는 5개의 경전으로 『시경』, 『서경』, 『역경』, 『춘추』, 『예기』를 칭한다.

11 『사기(史記)』 : 중국 전한의 역사가인 사마천이 지었다. 상고의 황제로부터 전한의 무제까지 2천 수백 년에 걸친 통사이다.

12 성리(性理) : 성리학에서 다루는 본성과 이치에 대한 학문

해설

공부는 여러 가지 조건이 만족되어야 합니다. 본인의 공부 의지 외에도 시간도 있어야 하고, 마땅한 책도 준비해야 하고, 건강도 허락해야 하고 지도해줄 적당한 선생도 필요합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주변을 둘러보면 본인은 공부에 열성을 보이는데 정작 공부에 몰두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잡고 공부를 하려고 하면 꼭 친구들이 전화를 해서 놀러가자고 해서 통 공부를 할 수 없어요. 제가 친구들한테 인기가 좋거든요. 어머니는 제가 친구들이 많아서 공부에 방해를 받는 것 같다고도 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제가 경제적으로 어려워 아르바이트를 해야 해서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경제적으로 여건이 좋다면 마음껏 공부를 할 수 있을 텐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밤늦게 하는 아르바이트라 잠이 모자라 강의에 집중을 하고 싶어도 자꾸 졸려서 놓칩니다. 그러다보니 점점 강의 내용도 모르겠고 흥미가 없네요.

친구가 많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공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가항력적인 결정적 요소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공부는 내가 하는 주체적인 행위이고 친구나 경제 여건 등은 외부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친구가 많은 사람은 공부에 몰두하기 위해 친구와 만나는 시간

이나 횟수를 슬기롭게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은 자신의 경제 여건을 꼼꼼히 검토해서 공부에 전념할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율곡이 배우는 자가 선비의 행실로 몸가짐을 단속하고 나면 공부할 터전이 마련된다고 한 말을 이런 의미로 읽어낼 수 있습니다. 독서와 강학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몸가짐을 단속하는 공부는 친구 관계나 경제 여건을 슬기롭게 풀어가는 노력에 견줄 수 있습니다.

이제 공부에 몰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다면, 본격적으로 공부로 뛰어들어야 합니다. 독서와 강학으로 의리를 밝히는 일입니다.

독서는 혼자서 하는 공부이고 강학은 함께 하는 공부입니다. 강학은 배운 내용을 동학들 앞에서 외우거나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학교에서 배우고 토론하는 것은 강학이고 혼자서 책을 읽는 것을 독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독서와 강학을 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의리를 밝히기 위함입니다. 의리라는 말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라는 의미로 '의리에 살고 의리에 죽는다.' '손해 보는 줄은 알았지만 동업자끼리의 의리 때문에 차마 발을 뺄 수가 없었습니다.' 등으로 사용되는 말입니다.

독서와 강학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의 원칙이나 기준을 배우는 것입니다. 의리의 원칙을 탐구하는 작업입니다. 의리에 살고 의리에 죽는다고 할 때 무엇이 의리에 합당한지를 판가름

하는 기준이나 원칙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건달의 의리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건달 사이의 의리는 건달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입니다. 조직에 충성을 다하고 배신을 하지 않는 등이겠지요. 그러나 건달의 의리라는 말은 형용모순입니다. 의리는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로서 올바름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건달 사이의 끈끈한 유대와 배신자에 대한 냉혹한 처벌 등은 그들 안에서 신뢰, 충성 등과 같은 덕목 요소를 가지고는 있지만 잘못된 신뢰, 잘못된 충성이기 때문에 의리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의리를 의리라고 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의리를 따지는 문제는 상당히 미묘하고 어렵습니다. 어떤 사안은 오른쪽과 왼쪽처럼 분명하게 나눌 수 있습니다만 많은 경우 시비를 따지는 것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특히 특정 사회와 문화의 헤게모니를 쥔 가치관이 개입될 때는 더욱 그러합니다.

기독교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일컬어집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과정은 그의 나이 75세였을 때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부터 시작합니다. 75세에 고향 하란을 떠난 후 모든 것이 순조로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한 후로 흉년이 들어 이집트로 내려가 살기도 했고, 또 이집트에서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아내를 누이라 속였다가 사래의 미모에 반한 이집트 왕에게 아내를 뺏길 번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많은 재물을 받고 아내와 함께 무사히 이집트를 빠져 나왔습니다. 그 후로 재산이 많아져서 조카 롯과 함께 머물지 못할 지경이 되어 롯은 소돔으로 이거하고 아브라함은 헤브론에 정착했습니다. 점차 아브라함의 세력은 강성해져서 소돔을 공격한 연합군에 잡혀간 조카 롯을 구할 정도로 무력도 갖추었습니다.

물질적으로 아브라함은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큰 민족을 이루도록 해준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요원해 보였습니다. 슬하에 자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흘러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다시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이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라고 또다시 언약을 확정하면서 여호와와의 약속을 지키는 징표로 할례를 명합니다.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고 사래라는 이름을 사라로 바꾸라고도 합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살 때에 이삭이 태어납니다. 이삭이란 '웃음'이란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75세의 아브라함에게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고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언약은 이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경수가 끊어진 90세의 사라가 이삭을 낳았으니 말입니다. 마치 동정녀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낳은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얻은 이삭을 번제로 바

치라는 가혹한 명을 내립니다. 그것도 아비가 직접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번제를 드리라고 합니다. 이삭은 이때 어렸지만 번제에 쓸 어린 양의 소재를 묻는 정도의 사리 분별이 가능한 연령이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그의 독생자인 이삭을 모리아 땅에서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사건을 통해서 진정한 믿음의 조상이 된다고 밝힙니다. 자신이 100세에 얻은 유일한 자식마저도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의 여정은 75세에 가나안 땅을 향해 떠나면서부터 시작해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대목에서 최고 절정에 달합니다.

교회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은 믿음을 논할 적에 반드시 거론되는 예화입니다. 설교하는 목회자이든 듣는 성도든 아브라함의 믿음을 찬송하고 존경을 표합니다. 저에게도 아브라함과 같은 확고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런데 어떤 교회에서 한 신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면서 진짜로 13살짜리 자신의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북한산으로 간다면 목회자나 다른 교인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 신도가 하나님의 음성을 아브라함처럼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의 믿음을 찬송하고 존경을 표할까요? 아니면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셨더라도 아비가 자식을 번제로 드리는 행위는 살인이기 때문에 용납될 수 없다고 할까요?

후자의 입장은 기독교 신앙을 가지지 않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받아들일 수 있겠지요. 그러나 기독교 신앙자라면 쉽게 동조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던 사건도 동일한 논리로 비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은 전자의 입장을 취해야 할까요? 여전히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아버지가 어린 자식을 죽이려고 한 점은 절대 용납될 수 없는데, 그것이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는 길이라니. 그리고 그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기독교에서 믿음은 알파요, 오메가입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이처럼 쉽지만은 않습니다.

『삼국유사』 효선(孝善)편에 〈손순매아(孫順埋兒)〉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손순이 어린 자식을 묻으려고 했지만 땅속에서 종을 발견하고 복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손순이 어린 자식을 묻고자 한 이유는 자신의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손순은 아내에게 "아이가 어머니의 음식을 빼앗아 먹으니 어머니의 굶주림이 심하오. 차라리 이 아이를 묻어 버리고 어머님이 배부르시게 하는 것이 좋겠소."라고 말하고, 아내와 함께 취산 북쪽으로 자식을 묻으려고 갔습니다.

음식이 부족한 문제라면 품팔이를 더 열심히 해서 마련하는 방법이 있을 터인데 자식을 생매장하는 방법밖에 없을까 의심이 듭니

다. 음식과 자식의 목숨을 저울에 달아 경중을 따진다면 손순의 결정을 쉽게 수긍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설화의 시대적 배경은 신라 흥덕왕 때(826-836)입니다. 헌덕왕부터 흥덕왕까지 신라는 홍수와 가뭄 같은 자연재해가 지속되었고, 이에 따른 기근과 도적떼의 봉기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전염병까지 창궐하면서 국가는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고려한다면 손순이 "아이가 어머니의 음식을 빼앗아 먹으니 어머니의 굶주림이 심하오."라는 말은 음식이 부족한 문제라기보다는 노모의 생명이 어린 자식 때문에 위협을 받는 지경이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손순이 어린 자식을 생매장하려고 했던 사건은 어머니를 봉양하는 음식이 부족해서 어린 자식을 매장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어린 자식의 목숨을 바치려고 한 행동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머니의 목숨을 위해 자식의 목숨을 바치는 행위가 타당한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전쟁 영화에서 늙은 부모가 자식과 손주를 떠나보내면서 "나는 이제 살만큼 살았다. 앞으로 창창한 너희들이 살아야지" 하고 말하는 장면처럼, 노모는 살날이 살아온 날보다 짧고 어린 자식은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습니다.

손순은 시부모와 자신이 직접 낳은 자식 중 한 명을 선택해야 하

는 아내에게 "아이는 다시 얻을 수 있으나 어머니는 다시 얻기 어렵소. 아이가 어머니의 음식을 빼앗아 먹으니 어머니의 굶주림이 심하오. 차라리 이 아이를 묻어 버리고 어머님이 배부르시게 하는 것이 좋겠소."라고 동의를 구합니다. 노모는 한 분이라 돌아가시면 끝이지만 자식은 또 낳을 수 있다고 아내를 설득합니다.

손순의 아내가 노모와 자식 중에서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은 마이클 샌델의 책에서도 소개되어 유명한 트롤리 딜레마를 연상시킵니다.

샌델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전차 기관사이고 지금 전차는 시속 100㎞가 넘는 속력으로 질주하고 있다. 그런데 저 앞에 다섯 명의 인부가 철로에 서 있다. 브레이크가 고장 나 멈출 수 없는 상황이다. 이 속도로 들이받으면 다섯 명이 모두 죽는다. 이때 오른쪽에 비상철로가 눈에 보인다. 그곳에도 인부가 있지만 한 명이 작업하고 있습니다. 비상 철로로 돌리면 인부 한 사람이 죽는 대신 다섯 사람이 살 수 있다. 어떻게 하겠는가?"

이 가상의 질문에 샌델이 여러분을 대신하여 답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돌려! 죄 없는 사람 하나가 죽겠지만, 다섯이 죽는 것보다는 낫잖아.' 한 사람을 희생해 다섯 목숨을 구하는 행위는 정당해 보인다."

이 논리를 노모와 어린 자식 중 양자택일 상황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한 명의 생명 값을 100이라고 한다면 노모는 100이 되고 어

린 자식의 가치는 100÷N(낳을 자식 수)입니다. 둘째를 낳는다면 매장하려고 하는 자식은 50이 되고 셋째를 3명을 낳는다면 33이 되고, 넷째를 낳는다면 25가 됩니다. 결국 샌델이 말한 것처럼 '돌려! 죄 없는 사람 하나가 죽겠지만, 다섯이 죽는 것보다는 낫잖아.'와 같은 결정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샌델은 전차 이야기를 하나 더 합니다. "당신은 기관사가 아니다. 철로를 바라보며 다리 위에 서 있는 구경꾼이다. 저 아래 철로로 기차가 들어오고, 철로 끝에 인부 다섯 명이 있다. 이번에도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는다. 전차가 인부 다섯 명을 들이받기 직전이다. 피할 수 없는 재앙 앞에서 무력감을 느끼다가 문득 당신 옆에 서 있는 덩치가 산만한 남자를 발견한다. 당신은 그 사람을 밀어 전차가 들어오는 철로로 떨어뜨릴 수 있다. 그러면 남자는 죽겠지만 인부 다섯 명은 목숨을 건질 것이다.(당신이 직접 철로로 몸을 던질까도 생각했지만, 전차를 멈추기에는 몸집이 너무 작다.) 그렇다면 덩치 큰 남자를 철로로 미는 행위가 옳은 일인가?"

샌델이 이 가상의 질문에 답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말할 것이다. '당연히 옳지 않지. 그 남자를 철로로 미는 건 아주 몹쓸 짓이야.' 누군가를 다리 아래로 밀어 죽게 하는 행위는 비록 죄 없는 다섯 사람의 목숨을 구한다 해도 끔찍한 것 같다."

이 논리를 또한 노모와 어린 자식 중 양자택일 상황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또다시 자식을 낳을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렇지

만 어떻게 저 순진한 어린아이를 부모가 생매장할 수 있단 말입니까? 샌델이 말한 것처럼 '당연히 옳지 않지. 그 남자를 철로로 미는 건 아주 몹쓸 짓이야.'와 같은 판단을 내리겠지요.

이 가상의 이야기는 딜레마라는 명칭처럼, 각 행위에서 도덕적 차이를 설명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노모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자식을 생매장하려고 하면서 아내에게 "아이는 다시 얻을 수 있으나 어머니는 다시 얻기 어렵소."라는 손순의 말은 윤리적으로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번제로 드린 것이 윤리적으로 정당화되기 어려운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린 행위는 기독교의 믿음과 순종이라는 신앙관에서 보자면 가장 신실한 행위입니다.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손순이 어린 자식을 생매장하려고 했던 행위는 부모를 위해 목숨까지도 바친다는 효도의 원리에서 보자면 극진한 효심의 발로입니다. 이 설화는 조선시대 대표적인 동몽서인 『명심보감』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리를 판단하는 문제는 쉽지 않습니다. 시비를 따질 적에 결과만이 아니라 행위자의 심적 동기를 고려해야 한다면 의리를 판단하는 과정은 더 복잡해집니다.

율곡은 넓게 배우고, 자세하게 질문하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명확하게 분별하고, 마음으로 터득하라고 합니다. 『중용』에서는 넓게 배우며, 살펴 물으며, 자세하게 생각하며, 밝게 분별하며, 도탑게 행

동하라고 했습니다.(『중용』 20:14)

배움은 직접 체험과 간접 체험이 있는데 간접 체험의 가장 좋은 통로는 책입니다. 책을 많이 읽으라는 이유입니다. 공부의 목적이 성인이 되는 것이라면 성인의 가르침이 들어있는 책을 읽어야겠지요. 성인이 지은 책이나 성인이 지은 책을 편집한 책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율곡은 『소학』을 먼저 배워 그 근본을 배양하고, 그다음에는 『대학』과 『근사록』으로 그 규모를 정하고, 그다음에는 『논어』, 『맹자』, 『중용』과 오경을 읽고, 『사기(史記)』와 선현의 성리(性理)에 관한 책을 간간이 읽어, 뜻을 넓히고 식견을 가다듬으라고 합니다. 의리의 원칙을 알아가는 교과서들입니다.

» 한문 원전 음미하기

學者旣以儒行檢身, 則必須讀書講學, 以明義理,
학 자 기 이 유 행 검 신 칙 필 수 독 서 강 학 이 명 의 리

然後進學功程, 不迷所向矣. 從師受業, 學必博,
연 후 진 학 공 정 불 미 소 향 의 종 사 수 업 학 빌 박

問必審, 思必愼, 辨必明, 沈潛涵泳, 必期心得.
문 필 심 사 필 신 변 필 명 침 잠 함 영 필 기 심 득

배우는 자가 이미 선비의 행실로 몸가짐을 단속하고 나서는 반드시 독서와 강학으로 의리를 밝혀야 하니 그런 뒤에 학문에 나아가야 학문의 방향이 흐리지 않는 것이다. 스승에게 배우되 배움은 넓어야 하고 질문은 자세하게 해야 하며 생각은 신중하게 해야 하고 분별은 명확해야 한다. 그리하여 깊이 생각하여 반드시 마음으로 터득하기를 기약할 것이다.

旣: 이미/以: ~써/儒行: 유학자의 행실/檢身: 몸을 단속하다/則: ~이라면/必須: 반드시/讀書: 책을 읽다/講學: 배운 내용을 강론하고 토론하다/明: 밝히다/義理: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然後: 이후에/進學: 학문에 나아가다/功程: 법도/迷: 헤매다/所向: 향할 곳/矣: 종결형 어조사로 이다/從: 따르다/受業: 수업 받다/博: 넓다/審: 자세하다/思: 생각하다/愼: 신중하다/辨: 분별하다/明: 분명하다/沈潛: 침잠하다/涵泳: 폭 적시다/期: ~할 것을 바라다/心得: 충분히 이해하다

每讀書時, 必肅容危坐, 專心致志, 一書已熟,
매 독 서 시 필 숙 용 위 좌 전 심 치 지 일 서 이 숙

方讀一書, 毋務汎覽, 毋事强記. 其讀書之序,
방 독 일 서 무 무 범 람 무 사 강 기 기 독 서 지 서

則先以小學, 培其根本.
즉 선 이 소 학 배 기 근 본

次以大學及近思錄, 定其規模. 次讀論孟中庸五經,
차 이 대 학 급 근 사 록 정 기 규 모 차 독 론 맹 중 용 오 경

閒以史記及先賢性理之書, 以廣意趣, 以精識見.
한 이 사 기 급 선 현 성 리 지 서 이 광 의 취 이 정 식 견

언제나 글을 읽을 때는 반드시 태도를 정숙하게 하고 단정히 앉아서 마음과 생각을 한곳으로 모아 한 가지 글에 익숙해진 다음에 비로소 다른 글을 읽어야 하고 많이 보기에 힘쓰지 말아야 하고 기억하는 것만 일삼지 말아야 한다. 글 읽는 순서는 『소학』을 먼저 배워 그 근본을 배양하고 다음에는 『대학』과 『근사록』으로 그 규모를 정하고, 그다음에는 『논어』, 『맹자』, 『중용』과 오경을 읽고, 『사기』와 선현의 성리에 관한 책을 간간이 읽어 뜻을 넓히고 식견을 가다듬어야 할 것이다.

每: 매번/時: ~할 때/肅容: 용모를 엄숙하게 하다/危坐: 단정히 앉다/專心: 마음을 오로지 하다/致志: 뜻을 집중하다/熟: 익숙하다/方: 지금 바로, 비로소/毋: ~하지 마라/務: 힘쓰다/汎覽: 두루 보다/事: 일삼다/彊記: 잘 기억하다/序: 순서/培: 배양하다/其: 그/根本: 근본/次: 다음으로/及: 및/定: 정하다/規模: 규모/閒: 사이 간(間)/廣: 넓히다/意趣: 의견/精: 정밀하게 하다/識見: 식견